

# 충남 서북부지역 기업인의 네트워크 활동 특성과 성과기대 분석

## Analytical Study between CEO's Performance Expectancy and His Network Activity

### Characteristics focused on North-West Area Companies of the Chungnam Province

최애희\*, 이재원\*\*, 윤광식\*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전문대학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Ae-Hee Choi(ceo@dreamer.co.kr)\*, Jae-Won Lee(jwlee@kut.ac.kr)\*\*,  
Kwang-Sik Yun(saeyer1@kut.ac.kr)\*

#### 요약

기업인의 네트워크가 기업의 성립과 성장에 중요하고 지역발전에도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지만 기업인네트워크와 그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기업인네트워크의 특성과 성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본 연구는 충남서북부에 소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인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기업인네트워크의 특성과 성과기대에 대한 분석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수행의 방법으로는 선행 연구들을 고찰하고 재무, 인적, 경영관리 성과기대를 종속변수로 하여 가입단체의 수, 평균 활동기간, 임원활동여부, 만족도의 독립변수와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을 실증분석 하였다. 검증은 응답된 전체 네트워크, 유형별 네트워크, 그리고 개별적 네트워크에 대한 3단계 분석으로 수행되었다. 분석결과, 모든 단계의 검증에서 인적 성과기대(직원채용 및 관리)는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전체 네트워크 검증에서 가입단체의 수가 성과기대(경영관리, 재무적)에, 만족도가 재무적 성과기대에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유형별 검증 단계에서 B2G유형의 임원활동여부와 만족도가, CEO과정유형의 평균활동기간이 성과기대(경영관리, 재무적)에 영향을 나타냈다. 개별적 검증 단계에서는 특정한 네트워크에 한 해서 임원활동여부와 만족도가 성과기대(경영관리, 재무적)에 영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기업인의 지역기반 기업인네트워크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활용을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 중심어 : | 기업인 네트워크 | 실태 조사 | 성과 기대 | 사회적 네트워크 |

#### Abstract

CEO's business network is important to the establishment and growth of companies and it is recognized as an essential element in regional development, but the related research and studies including surveys on the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 of the CEO's network and its activities are lacking. This study aimed at companies located in the northwestern part of the Chungnam to survey about CEO's network activities, and research about the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 expectancy of the network was carried out. As research methods, we discussed the previous studies, designed and analyzed the research models empirically using the survey. Analysis based 3 stages approach showed that the performance expectancy on human resource such as recruit was not affected by any factors overall. CEO's satisfaction affect significantly to the both of performance expectations of finance and general management by types of the network and its differentiated program. Executive activities, # of joining network, and period of activity affected also conditionally. This study have contributions that enable businessmen can take advantage of strategic use on the region's business network activity.

■ keyword : | CEO Network | Performance Expectancy | Survey Research | Social Network |

\* 이 논문은 2011년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육연구진흥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접수번호 : #120914-003

심사완료일 : 2012년 10월 29일

접수일자 : 2012년 09월 14일

교신저자 : 이재원, e-mail : jwlee@kut.ac.kr

## I. 서론

기업인에게 요구되는 여러 가지 능력과 역할들 중에서 인간관계 능력과 대인관계 역할은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1]. 때문에 기업인들은 기업의 규모, 산업/업종, 지역을 불문하고 자기 기업과의 관련성이 있거나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기업인들과의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강화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투입한다. 기업인이 인적 네트워크 활동에 집중하는 이유는 접근이나 획득이 어려운 정보와 자원을 손쉽게 동원할 수 있으며 기업성공에 필수적이거나 부족한 정보, 자원(인적자원 포함), 자본, 재화, 인재와 역량 등을 좀 더 용이하게 획득할 수 있어 기업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주어왔기 때문이다[2-5].

현재 한국에는 3,264,782개의 기업이 존재하며, 이중 충남에는 131,549개의 기업이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충남서북부의 천안, 아산 지역에 약 48,783개의 기업이 자리하고 있다[6]. 그리고 천안, 아산 지역의 기업인들 대상으로 네트워킹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인네트워크는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상공회의소, 충남경제진흥원, 충남 이업종교류회, 대학의 경영자 프로그램, 지역별 산업단지 입주사 협의회, 그리고 각종 기업인 모임을 포함하여 상당한 숫자로 늘었지만 그 규모나 실태가 조사된 바는 없는 실정이다. 물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유관기관과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에 의하여 기업의 성장단계별 다양한 지원정책과 관련한 연구 성과들이 상당한 양으로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기업인네트워크와 그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기업인네트워크의 특성과 성과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미미하여 대인관계 네트워킹을 통해 경영성과 창출 및 개선을 달성하고자 하는 기업인들, 더 나아가 기업인과 기업인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정책 활동과 기관 활동을 수행해야만 하는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 및 연구기관, 그리고 지역대학들에게 실효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확산을 고려한다면 기업인들 사이의 사회경제활동의 모임으로써의 기업인 네트워크에 대한 조사와 분석연구는 그 중요도와 의의가 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천안, 아산을 주 소재지로

하는 충남서북부 기업의 기업인들 대상으로 기업인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활동 중인 기업인네트워크의 특성과 성과기대에 대한 분석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기업인들이 경영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기업이 지역 발전에 참여하는 사회적 네트워크[7]를 그리고 공공부문과 지역대학들이 강화하고 있는 기업체 네트워크를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토록 하고자 한다.

연구수행의 방법으로는 선행 연구들을 고찰하고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해 기업인네트워크의 특성과 성과기대 사이의 유의한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업인이 형성하고 있는 네트워크의 구조, 성격 및 범위에 대한 활용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이러한 조사특성들이 기업의 경영관리성과기대, 재무적성과기대(매출향상) 및 인적 성과기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기업인네트워크의 문헌연구와 유형을 파악하고, 3장에서는 연구모형 및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표본설계 및 분석방법을 기술한다. 4장에서는 조사결과의 분석과 가설의 검증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 5장은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고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안을 제시한다.

## II. 문헌연구

### 1. 기업인 네트워크의 개념

기업인 네트워크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은 개념과 필요성에 관한 연구, 사회적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연구, 중소기업과 벤처 및 창업에 관련한 연구들이 주로 존재한다.

먼저, 기업인 네트워크는 기업인 혹은 기업 간 특정한 관계에 의해 연결되는 기업과 기업인의 집합을 말하며, 관계의 관점에서는 기업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관리하는 경제시스템이다. 기업인 네트워크는 기업 간 추상적인 관계까지를 포함하여 지속적인 연결 관계를 가진 제 조직과 구성원들의 집합체로서 네트워크의 특성을 갖는다.

협력네트워크[8] 또는 기업거래 관계, 거래 네트워크

등이 유사한 개념용어에 속한다. 이런 기업인 네트워크는 참여자간의 계약관계의 유무를 중심으로 공식적인 네트워크와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로 나뉘며[9], 주로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1-5개 정도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으로 보인다[10].

중소기업간 네트워크는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연계활동에 유효하고 수평적인 이업종 교류활동이 중요하며[11], 네트워크의 활용은 기업이 지속적인 혁신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각 산업별 또는 지역별의 협회나 조합 등 네트워크의 활성화[12]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기업인 네트워크 형성과 관리에 대한 투자 효과성에 대해서는 기업연한이 특히 중요해서 네트워크 투자를 일종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로 할 필요를 논하였다[13]. 다른 한편으로는 네트워크가 장기화 될 경우 서로 유사해지는 조직간 동형화의 경향성에 따른 부작용[14]과 신규참여를 제한하고 혁신을 가로막는 기득권 동맹으로 경화되는 부작용[15]을 강조하였다.

## 2. 사회적 네트워크 관련 연구

사회적 네트워크는 기업인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 확보한 네트워크로써 기업인 개인이 각종 사회적 네트워크와 갖는 개별적인 접촉의 집합[5]이다. 따라서 사회적 네트워크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로 연결된 사람과 조직의 집합체로서 비공식적이고 비계약적인 연결망의 형태[9]를 갖는다. 이런 네트워크는 개별 관계들을 분석의 단위로 하고 있으며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사회적 활동을 연결하는 행위 관계를 근거로 한 분석을 시도한다. 최근의 연구들은 주로 개인의 네트워크 활동을 분석해 오고 있다[2].

기업의 성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기업인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강조되고 있다[16-18]. 이때 기업인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사회적 자본과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으며, 한 기업인이 더 많은 사회적 자본을 보유하게 될수록 보다 다양한 연결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정보와 자원의 확보가 더욱 가능해 진다[19]. 물론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적 자본의 확보는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의 효율성과 성과를 창출하게 한다[20].

이런 기업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흐름이 발생되

며 이러한 정보흐름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확보가 어려운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21]. 기업인 네트워크는 관계와 구조로써 정보이익을 제공하므로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하여 정보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자본화가 가능하고 기업인과 기업의 경쟁우위 창출에 기여한다[2]. 이렇게 기업인의 네트워크 활동이 기업의 성과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하여 관계수와 모임의 수를 확대하고 관계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네트워크 활동을 요구하였다[22].

## 3. 벤처, 창업,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벤처기업은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위험감소, 사회적 관계를 통해 시장거래비용보다 낮은 비용으로 필요자원을 획득할 수 있거나, 지역사회에서 도움과 재무자원을 획득, 유통채널에의 접근, 정보획득, 혁신과 같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23][24]. 따라서 벤처기업의 네트워크 활동은 보다 효과적인 자원 통제방법, 계약으로 통제 불가능한 환경에의 접근, 정보나 자원뿐만 아니라 창업자 활동의 정당성 제공, 잠재적 도움 원천에 대한 탐색 등을 가능하게 하고 기존의 네트워크와 신규 종업원의 네트워크를 결합함으로써 네트워크 역량 형성과 같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25].

기업인 네트워크가 창업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기업인은 창업기회를 포착하고, 창업에 필요한 자원, 즉 정보, 지식, 인력, 자금 등을 조직화하게 된다. 또한 기업인 또는 신생기업의 네트워크가 창업이후의 기업성장에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외부로부터 부족한 자원을 획득하거나 제휴 네트워크를 통해 보완하려고 한다[26].

벤처기업들은 성공적인 전략수행을 위해서 전략적 네트워크의 협력을 구사하여야 성과를 높일 수 있으며[27], 네트워크 효과는 혁신유형과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특히 중소기업들은 기업 간 협력과 네트워킹을 통해서 제품혁신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함[28]을 논하고 있으며,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존재하는 기업 간 네트워크가 전략적 네트워크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평가하였다[9].

중소기업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이유로는 정보, 공동 프로젝트, 제휴 등 신뢰관계 구축을 통한 사회적 자본을 창출 및 축적하거나[10], 중소기업 이업종교류 활동과 같이 초기에는 대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상호간의 경쟁은 피하면서 자원을 공유하려 하였으나 교류나 목적이 변하고 있음[29]을 지적하고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관계형성[30]을 요구하고 있다.

### III. 연구조사의 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의 결과를 참조하여 다음을 중심으로 조사 및 분석하고자 하였다. 첫째, 기업인네트워크 가입단체의 수에 따라 기업의 재무적 성과기대, 인적 성과기대, 경영관리성과기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둘째, 기업인네트워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기업의 재무적 성과기대, 인적 성과기대, 경영관리성과기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셋째, 기업인네트워크 평균활동기간에 따라 기업의 재무적 성과기대, 인적 성과기대, 경영관리성과기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넷째, 기업인네트워크 내 임원활동여부에 따라 기업의 재무적 성과기대, 인적 성과기대, 경영관리성과기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여기서 성과기대는 기업인 성과에 대한 대리변수로서 기업가의 주관적 지표를 활용하였는데, 중소기업의 성과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확보도 쉽지 않으며 전통적 측정방법들이 중소기업의 성과를 설명하는데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2].

앞서 제시된 연구가설의 검증은 응답된 전체 네트워크, 유형별 네트워크, 그리고 개별적 네트워크에 대한 3단계 분석으로 수행하였다. 1단계는 9개의 기업인네트워크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서 검증하고, 2단계는 9개의 기업인 네트워크를 B2G, B2B, CEO과정 3가지 유형별로 분류하여 검증하였으며, 3단계는 9개의 기업인네트워크에 대해 각각 개별적으로 검증하였다.

이에 더하여 기업인 네트워크의 가입 활동 및 실태의 조사를 위해서 충남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대표적인 가입단체를 대상으로 가입 여부와 활동유형, 가입 목적, 활동기간으로 모임에 필요성과 정보획득 및 교환, 그 외 기업인 네트워크의 중요성과 만족도를 확인하고

자 하였다.

### 1. 연구모형 설계

통제변수로는 기업인특성[31]으로 성별, 독립변수로는 기업인네트워크 특성으로 가입단체의 수, 만족도, 평균활동기간, 임원활동여부로 하였으며, 종속변수로는 성과기대로 재무적, 인적, 경영관리 성과기대로 하였다. 이상의 변수설계 내용을 [표 1]에 보였으며, [그림 1]과 같이 회귀분석에 대한 연구모형으로 설계하였다.

표 1. 변수 설명

항목	변수설명	내용
종속 변수	재무적성과기대, 인적성과기대, 경영관리성과기대	5점척도
독립 변수	기업인네트워크 활동 특성 기업인네트워크 만족도	가입단체수, 평균활동기간, 임원활동여부, 만족도(5점척도)
통제 변수	기업인 및 기업의 특성	성별(남=1,여=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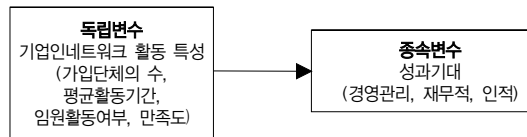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이에 따라, 연구가설의 설계는 [그림 1]의 연구모형과 같이 각 독립변수(기업인네트워크특성의 3개 변수, 만족도)가 각 종속변수(성과기대의 3개 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는 연구가설로 설계하였다.

### 2. 조사개요

표 2. 조사의 개요

설문조사 대상	조사기간	배포 부수	회수 부수	회수율	분석 제외 부수	실제 분석 부수
충남서북부 중소기업 CEO	2010년 8월12일~8월31일	200부	120부	60%	30부	90부

설문조사는 [표 2]와 같이 2010년 8월 초부터 중순까지 충남서북부 지역 CEO 대상으로 직접 설문지 작성(자기기입식)을 의뢰하였고 설문지는 200개 기업 대표

이사에게 설문을 요청하였다. 이중 120개 기업 대표이사가 설문에 응답하였다.

[표 3]과 같이 설계된 설문지는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지 회수는 직접 응답지를 받거나 메일 또는 팩스로 회수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충실하거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여 작성이 되지 않은 20개 설문지를 제외하였고 또한 타인의 의견이 개입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 설문조사기간 이후에 도착한 10개를 제외하여 90개 설문지를 가지고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3. 설문지의 설계

설문구성	설문내용
기업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 소재지</li> <li>- 근로자 수 현황</li> <li>- 연매출액</li> <li>- 기업유형</li> <li>- 산업유형(업종)</li> </ul>
응답자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명</li> <li>- 대표자성명</li> <li>- 성별</li> <li>- 출신지</li> <li>- 최종학력</li> <li>- 회사 설립연도</li> </ul>
가입한 기업인네트워크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입한 기업인네트워크 총 수</li> <li>- 기업인네트워크(예시9개, 복수응답) 가입여부(O, X표시), 활동유형(임원, 회원), 가입목적, 활동기간</li> <li>- 예시 9개 이외 기업네트워크 명칭, 가입여부(O, X표시), 활동유형(임원, 회원), 가입목적, 활동기간</li> <li>- 기업인네트워크(9개)의 중요도, 상대적중요도 백분율, 만족도</li> </ul>
기업인네트워크 활동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관리성과기대의 의견(5점척도)</li> <li>- 재무적성과기대의 의견(5점척도)</li> <li>- 인적성과기대(직원채용 및 유지, 관리)의 의견(5점척도)</li> </ul>
기업인네트워크 신규가입 시 고려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회원들의 이력</li> <li>- 기존회원들의 회사 매출액규모</li> <li>- 지인 가입 유무</li> <li>- 주관 기관의 인지도</li> <li>- 기타(활동목적과 교육내용)</li> <li>- 5개의 고려조건의 중요도(5점척도)</li> </ul>
기업인네트워크 향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의 기업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li> <li>- 향후 개선방향(회원수, 회원의 질, 교육내용, 회원등록비, 신청절차, 지원행정서비스, 사후관리)에 대한 의견(5점척도)</li> <li>- 다른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li> </ul>

## IV. 기업인네트워크 조사분석

### 1. 기업인네트워크 실태분석

응답이 이뤄진 90개 기업의 기초통계를 살펴보면, 남성 81.1%와 여성 18.9%의 성별로 조사되었고, 업종별로는 대부분 제조업(70%)과 서비스업(18%)이었으며, 그 외에 기반산업, 농업임업, 기타산업 순이었다. 매출규모별로는 '30억 이상 50억 미만'이 44.1%, '50억 이상 100억 미만'이 26.5%, '10억 미만'이 20.6%, 그리고 '500억 이상' 6개사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최종학력은 대졸 69.7%, 대학원졸 16.9%, 고졸 13.5%의 순서였으며, 기업의 업력은 '6년 이상 10년 이하' 33.3%, '10년 이상 20년 이하' 32.3%, '5년 이하' 23.3%, 그리고 '20년 이상' 이상 기업이 11.1%로 조사되었다.

표 4. 가입단체수 실태에 따른 성과기대

가입단체수		경영관리 성과기대	재무적 성과기대	인적성과 기대
0	평균	3.80	2.20	2.40
	기업체수	5	5	5
1개	평균	3.55	2.45	2.91
	기업체수	11	11	11
2개	평균	3.56	2.56	2.50
	기업체수	18	18	18
3개	평균	3.86	2.78	2.65
	기업체수	22	23	23
4개	평균	4.00	3.09	2.82
	기업체수	11	11	11
5개	평균	4.00	3.12	2.94
	기업체수	17	17	17
6개 이상	평균	4.25	3.25	2.50
	기업체수	4	4	4
결측값	기업체수	2	1	1
합계	평균	3.82	2.79	2.71
	기업체수	90	90	90

기업인네트워크에 대한 가입실태를 보면, 먼저 가입단체수의 경우에는 [표 4]와 같이 3개>2개>5개 가입단체수의 순서로 그리고 평균적으로 2.96개의 기업인네트워크 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입단체수별로 기업체의 경영관리성과기대, 재무적 성과기대, 인적

성과기대에 도움을 준 영향을 분석한 결과 4개 이상 가입한 기업체가 경영관리성과기대, 재무적 성과기대 부분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평균으로 보면 경영관리(3.82), 재무적 성과기대(2.79)와 인적성과기대(2.71)에는 다소 도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입네트워크 수가 늘어날수록 경영관리에 도움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인네트워크 가입 후 평균활동기간을 조사한 결과는 남성 기업인은 가입단체별로 평균 2.44년에서 3.35년 정도, 여성기업인은 2.0년에서 4.0년 정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평균으로는 남성 기업인이 2.92년, 여성 기업인이 2.87년 동안 각 가입단체의 활동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인네트워크 가입 후 임원 및 회원으로서의 활동 유형을 조사한 결과, 평균 29.2%가 임원활동을 70.8%가 일반회원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인 성별, 산업(업종)에 따라 기업체의 경영관리 성과기대, 재무적 성과기대, 인적 성과기대에 미친 영향을 집단별 평균비교분석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남성 기업인은 경영관리(3.75), 즉 회사 운영 및 경영환경 개선에 대한 성과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 기업인은 특히 경영관리(4.13) 그리고 재무적 성과기대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산업분류별로는 특히 서비스업(4.06)이 그리고 제조업(3.76), 기반산업(3.71)이 상대적으로 경영관리부분에 성과기대가 높게 응답하였다.

기업인네트워크의 운영 및 유지를 위한 조사로써, 기업네트워크 단체에 대한 신규 가입 시 고려조건별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기존 회원들의 이력'(3.70)과 '주관기관의 인지도'(3.60)가 상대적으로 '기존 회원들의 회사매출액 규모'(2.95)나 '지인의 가입여부'(2.90)보다 중요하다고 나타났으며, 기업인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단체나 운영진이 활동에 있어 향후 개선해야 할 항목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서는 '교육내용'(3.73), '사후관리'(3.69), '회원의 질'(3.59), '지원행정서비스'(3.52)가 '회원 수'를 포함한 타 요인보다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에서 가입네트워크 단체를 예비 조사를 통해 9개로 한정하여 예시 하였으며 복수응답으로 가입활동을 조사하였다. 대상은 상공회의소, 충남

테크노파크, 대전충남이업종교류회, 충남벤처협회, 충남국제로타리클럽, H대학교 CEO과정, K대학교 CEO과정, D대학교 CEO과정, S은행 CEO모임이었다.

본 연구는 가설검증 과정에서는 위 9개 네트워크를 B2G, B2B, CEO과정의 3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유형별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만족도의 실태분석에 한해서는 대학CEO과정을 별도로 분류하여 B2G, B2B 유형과 평균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업체의 매출액별로 가입한 기업인네트워크 단체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10억 미만' 기업은 만족도가 B2G(3.13), 대학교CEO(2.80), B2B(1.50)순으로 나타났고, '30억 이상 50억 미만' 기업은 B2B(3.50), 대학교CEO(3.33), B2G(3.15)순으로, '100억 이상 500억 미만'인 기업체는 B2G(3.42), B2B(3.41), 대학교CEO(2.70)순으로, '500억 이상' 기업체는 대학교CEO(3.58), B2G(2.94), B2B(2.50)순으로 나타났다. 30억 이상 50억 미만인 기업체들은 세 유형 모두 만족도가 보통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100억 이상 500억 미만인 기업체들은 B2G와 B2B 형태의 네트워크에서 만족도가 보통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10억 미만인 기업체에서는 B2G만 만족도가 보통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500억 이상인 기업체는 대학교 CEO과정에서만 만족도가 보통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매출액별 기업체가 가입한 기업인네트워크 단체에 대해 느끼는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10억 미만'은 B2G(3.46), B2B(2.92), 대학교CEO(2.74)순으로 나타났다. '30억 이상 50억 미만'은 모든 유형에 보통 미만 중요도를 보였고, '100억 이상 500억 미만'은 B2B(3.44), B2G(3.33), 대학교 CEO과정(2.63)순으로 나타났다. 500억 이상인 기업체들은 모두 보통 미만의 낮은 중요도를 보였다.

기업체들이 가입한 기업인네트워크 유형별로 경영관리, 재무적, 인적 성과기대에 영향을 분석한 결과 B2G, B2B, 대학교CEO과정 세 유형 모두 경영관리성과기대에서는 보통이상으로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재무적 성과기대와 인적 성과기대에는 보통 미만으로 나타났다.

## 2. 가설의 검증

본 연구는 가설의 검증을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1단계로 9개의 기업인네트워크를 전체로 분석하였고, 2단계로 기업인네트워크를 B2G, B2B, CEO과정의 3가지 유형별로 분류하여 분석했으며, 3단계는 각 9개의 기업인네트워크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였다.

### 가. 기업인네트워크 전체 분석

9개의 네트워크를 기업인네트워크 한 종류로 보고 난 뒤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성과기대(경영관리, 재무적, 인적)에 가입 수, 만족도, 평균활동기간, 임원활동여부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표 5. 가입네트워크 전체 상관관계분석

Pearson 상관계수(n=90)								
	1.	2.	3.	4.	5.	6.	7.	8.
1. 가입단체의 수	1							
2. 만족도	-.021	1						
3. 성별더미	-.033	.175	1					
4. 평균활동기간	<b>.433**</b>	-.030	.033	1				
5. 임원활동더미	<b>.383**</b>	.141	.162	<b>.192</b>	1			
6. 경영관리성과기대	<b>.209</b>	.016	-.174	.156	.066	1		
7. 재무적성과기대	<b>.276**</b>	<b>-.331**</b>	<b>-.209*</b>	.152	.121	<b>.437**</b>	1	
8. 인적성과기대	.080	-.022	-.090	.041	.055	<b>.427**</b>	<b>.395**</b>	1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 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 상관계수는 0.1수준(양쪽)에서 유의함.

[표 5]와 같이 기업인네트워크 가입 수는 경영관리성과기대와 재무적성과기대에만 유의미한 수준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성별과 만족도는 재무적성과기대에만 유의미한 수준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Pearson 상관계수 값이 ±0.4이상 이 되지 않아 약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종속변수로 성과기대(경영관리, 재무적, 인적)를, 독립변수로 가입 수, 만족도, 평균활동기간, 임원활동더미를, 통제변수로 성별더미로 대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표 6]과 같이 경영관리성과기대와 인

적성과기대에 대한 회귀모형은 유의하지 않고, 재무적성과기대에 대한 회귀모형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기업인네트워크 가입단체의 수는 재무적성과기대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만족도는 재무적성과기대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기업인네트워크 전체 회귀분석결과

(종속변수 : 재무적성과기대)

변수	B값	t값
상수	3.574	6.431***
가입 수	0.221	2.324**
만족도	-0.356	-2.974***
성별더미변수	-0.449	-1.477
평균활동기간	-0.033	-0.265
임원활동더미	0.424	1.618
수정된 R <sup>2</sup>	0.216	
F값	4.692***	

\*\*\*: p<0.01, \*\*: p<0.05, \*: p<0.1

표 7. 기업인네트워크 전체 단순회귀분석결과

종속 변수	변수	B값	t값	수정된 R 제곱	F값
경영관리 성과기대	상수	3.486	18.457***	0.033	3.937*
	가입 수	0.110	1.984*		
재무성과기대	상수	2.236	9.627***	0.065	7.151***
	가입 수	0.182	2.674***		
재무성과기대	상수	4.019	9.572***	0.096	8.246***
	만족도	-0.358	-2.872***		

\*\*\*: p<0.01, \*\*: p<0.05, \*: p<0.1

추가로 [표 7]과 같이 독립변수로 가입 수만을 대입하여 단순회귀분석을 한 결과 기업인네트워크 가입 수는 경영관리성과기대와 재무적성과기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만족도는 재무적성과기대에만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기업인들이 네트워킹 활동에서 직인 채용과 추천 같은 인적성과기대보다는 경영관리와 재무성과기대를 위해 네트워크에 가입하지만 네트워크의 만족도가 높을 수록 재무적성과기대는 작아지는 단면을 보인다.

### 나. 기업인네트워크 유형별 분석

9개 네트워크를 B2G, B2B, CEO과정의 3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유형별로 기업인 네트워크에 대한 만족도, 중

요도, 그리고 성과기대(경영관리, 재무, 인적)에 대한 영향을 상대적으로 분석하였다. B2G유형에는 상공회의소, 충남테크노파크, 대전충남이업중교류회, 충남벤처협회가 속하고, B2B유형에는 충남국제로타리클럽, 나머지는 CEO과정으로 분류하였다.

기업인들이 복수응답한 가입 기업인네트워크들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경영관리, 재무적, 인적 성과기대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표 8]과 같이 B2G, B2B, CEO과정 세 유형 모두 경영관리성과기대에는 보통이상으로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재무적 성과기대와 인적 성과기대에는 보통 미만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인들이 B2G와 CEO과정을 B2B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만족도 역시 B2B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8. 네트워크 유형별 성과기대 및 중요도, 만족도

네트워크 명	성과기대			중요도	만족도
	경영관리	재무적	인적		
B2G (n = 67)	3.81	2.88	2.76	3.28	3.28
B2B (n = 11)	3.90	3.00	2.82	2.63	2.89
CEO과정 (n = 62)	3.77	2.79	2.65	3.24	3.41

기업인네트워크의 3가지 유형별로 성과기대(경영관리, 재무적, 인적), 평균활동기간, 만족도, 성별더미변수, 임원활동더미변수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한 결과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들을 아래 [표 9]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9. 기업인네트워크 유형별 상관분석

기업인네트워크 유형	상관관계 있는 변수	Pearson 상관계수
B2G	성별-경영관리성과기대	-0.335***
	임원활동-경영관리성과기대	0.212*
	만족도-재무적성과기대	-0.354***
	평균활동기간-임원활동	0.294**
	성별-임원활동	0.205*
B2B	성별-만족도	0.712**
CEO과정	만족도-인적성과기대	0.332**
	성별-재무적성과기대	-0.220*
	평균활동기간-경영관리성과기대	0.224*
	평균활동기간-재무적성과기대	0.237*

\*\*\*: p(0.01), \*\*: p(0.05), \*: p(0.1)

표 10. 기업인네트워크 유형별 회귀분석

기업인네트워크	종속 변수	변수	B값	t값	수정된 R 제곱	F값
B2G	경영관리성과기대	상수	4.129	8.558***	0.142	3.317**
		성별더미	-0.875	-3.090***		
		만족도	0.043	0.413		
		평균활동기간	0.004	0.041		
	재무적성과기대	상수	4.336	7.045***	0.110	2.733**
		성별더미	-0.418	-1.157		
		만족도	-0.371	-2.796***		
		평균활동기간	0.017	0.125		
CEO과정	경영관리성과기대	상수	3.605	8.889***	0.052	2.552*
		성별더미	-0.453	-1.442		
		평균활동기간	0.189	1.779*		
		재무적성과기대	상수	2.662		
	성별더미	-0.606	-1.733*			
	평균활동기간	0.231	1.879*			

\*\*\*: p<0.01, \*\*: p<0.05, \*: p<0.1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들과 종속변수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들로만 볼 때, 모두 ±0.4보다 작게 나타나 상관관계가 약하게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분석 후 B2G 유형의 성과기대(경영관리, 재무적, 인적)를 종속변수로, 평균활동기간, 만족도, 임원활동더미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0]과 같이 임원활동여부는 경영관리성과기대에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만족도는 재무적성과기대에만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성과기대에 대한 회귀모형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B2B 유형의 회귀분석 결과는 성과기대별 회귀모형이 모두 유의하지 않게 나와 B2B유형은 가입한 기업들에게 성과기대를 주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CEO과정 유형의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성과기대에 대한 회귀모형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다만, 독립변수로 평균활동기간만을 대입하여 단순회귀분석한 결과 경영관리성과기대와 재무적성과기대에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기업인네트워크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에서 기업인들은 B2G와 CEO과정에서 B2B보다 성과기대(경



영관리, 재무적)를 얻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지원과 대학과의 산학연계를 더 중요시 여기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충남 서북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다. 기업인네트워크 개별적 분석

9개 기업인 네트워크들에 대해서 각 네트워크별로 해당 기업인네트워크에 대한 만족도, 중요도, 그리고 성과기대(경영관리, 재무, 인적)에 대한 영향을 상대적으로 분석하였다. 평균비교분석을 통해서 [표 11]과 같이 정리하였다. 상대적으로 경영관리성과기대는 D대학 CEO과정(최소 선택응답수 무고려)과 충남테크노파크가, 재무성과기대는 상공회의소가 높았으며, 인적성과기대는 전반적으로 보통수준으로 응답하였다. 개별적 중요도와 만족도에서는 대전충남이업종교류와 S은행CEO과정이 차별적으로 높게 나타나 해당 네트워크에 대한 가입자 고객충성도가 높게 판단되었다.

표 11. 네트워크별 성과기대 및 중요도, 만족도

네트워크 명	성과기대			중요도	만족도
	경영관리	재무적	인적		
상공회의소 (n=22)	3.81	3.10	2.81	2.67	2.83
충남테크노파크 (n=48)	3.92	2.88	2.79	3.30	3.27
대전충남이업종교류회 (n=22)	3.59	2.95	2.68	3.60	3.50
충남벤처협회 (n=19)	3.84	2.79	2.84	3.06	3.07
충남국제로타리클럽 (n=11)	3.90	3.00	2.82	2.89	2.63
H대학CEO과정 (n=38)	3.59	2.86	2.68	3.13	3.43
K대학CEO과정 (n=23)	3.78	2.61	2.74	3.23	3.15
D대학CEO과정 (n=6)	4.00	3.00	2.17	2.40	3.00
S은행CEO과정 (n=27)	3.85	2.89	2.48	3.55	3.68

또한, 본 절에서는 9개 기업인네트워크별로 성과기대(경영관리, 재무적, 인적), 성별, 설립연한, 활동기간, 만족도, 임원활동여부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표 12]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12. 기업인네트워크별 상관분석 정리

기업인네트워크	상관관계 있는 변수들	Pearson 상관계수
상공회의소	성별-설립연한	- 0.404*
	성별-만족도	- 0.515**
	임원활동-만족도	0.453*
충남테크노파크	성별-경영관리성과기대	0.344**
	성별-재무적성과기대	0.261*
	성별-만족도	- 0.261*
	성별-임원활동	- 0.287**
	만족도-재무적성과기대	- 0.522***
	만족도-설립연한	0.276*
	임원활동-활동기간	0.250*
대전충남이업종교류회	설립연한-인적성과기대	0.419*
	활동기간-경영관리성과기대	0.381*
충남벤처협회	만족도-경영관리성과기대	0.779***
	만족도-재무적성과기대	0.393*
	만족도-인적성과기대	0.605**
충남국제로타리 클럽	성별-만족도	0.488*
	성별-만족도	- 0.712**
H대학 CEO과정	설립연한-인적성과기대	0.298*
	활동기간-경영관리성과기대	0.453***
	만족도-경영관리성과기대	0.571***
	만족도-인적성과기대	0.618***
	임원활동-활동기간	0.357**
K대학 CEO과정	활동기간-재무적성과기대	0.370*
	활동기간-설립연한	0.415*
D대학 CEO과정	만족도-활동기간	- 0.945**
S은행 CEO과정	활동기간-설립연한	0.374*
	만족도-인적성과기대	0.565**

p < 0.01 : \*\*\*, p < 0.05 : \*\*, p < 0.1 : \*

개별적인 네트워크별로 상관분석을 실시한 후 회귀분석을 통해 [표 13]과 같이 독립변수인 만족도, 활동기간, 임원활동여부가 종속변수인 성과기대(경영관리, 재무적, 인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대전충남이업종교류회, 충남국제로타리클럽, K대학 CEO과정, D대학 CEO과정, S금융 CEO과정에 가입한 기업들의 회귀모형에서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입기업들이 해당 네트워크 모임에서 성과기대(경영관리, 재무적, 인적)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공회의소에 가입한 기업인들의 경우에는 만족도만이 경영관리성과기대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무적성과기대와 인적성과기대는 회귀모형이 성립되지 않았다. 임원활동여부를 독립변수로 대입한 회귀모형은 유의하지 않아 제외되고 만족도만을 독

립변수로 대입하여 단순회귀분석한 것이다.

충남테크노파크에 가입한 기업인들은 임원활동여부가 경영관리성과기대에만 정(+)의 영향을 미치고 만족도는 재무적성과기대에만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적성과기대에 대한 회귀모형은 성립되지 않았다.

충남벤처협회에 가입한 기업인들은 만족도만 경영관리성과기대와 재무적성과기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대학 CEO과정에 대해서는 만족도만이 경영관리성과기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적 기업인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기업인들이 가입한 기업인네트워크별로 만족도는 상공회의소와 H대학CEO과정의 경우 경영관리성과기대에만, 충남TP와 충남벤처협회에는 성과기대(경영관리, 재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다른 네트워크는 성과기대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남테크노파크만이 임원활동을 하면 경영관리성과기대는 높아질 것이라고 나타났다. 이는 해당하는 기업인 네트워크별로 특성과 지향 목표가 차별화되어 가입한 기업인들에게 전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13. 기업인네트워크별 회귀분석 정리

기업인 네트워크	종속변수	변수	B값	t값	수정된 R 제곱	F값
상공회의소	경영관리성과기대	상수	3.837	7.007***	0.183	2.898*
		성별더미	-1.336	-2.124*		
		만족도	0.372	2.066*		
충남테크노파크	경영관리성과기대	상수	4.792	13.220***	0.198	4.289**
		성별더미	-0.755	-2.463**		
		만족도	-0.141	-1.465		
		임원활동	0.714	2.631**		
	재무적성과기대	상수	4.816	9.881***	0.263	5.757**
		성별더미	-0.430	-1.042		
		만족도	-0.484	-3.733***		
	임원활동	0.502	1.373			

충남벤처협회	경영관리성과기대	상수	2.984	5.557***	0.685	10.421***
		성별더미	-1.863	-4.012***		
		만족도	0.816	5.221***		
	임원활동	-0.053	-0.171			
	재무적성과기대	상수	2.180	2.836**	0.529	5.860**
		성별더미	-2.203	-3.215***		
만족도		0.857	3.714***			
임원활동		0.211	0.454			
H대학 CEO과정	경영관리성과기대	상수	1.751	2.539***	0.255	4.307**
		성별더미	-0.164	-0.425		
		만족도	0.544	3.417***		
		임원활동	-0.086	-0.222		

\*\*\*: p<0.01, \*\*: p<0.05, \*: p<0.1

## V. 결론

### 1. 연구결과의 논의와 시사점

본 연구는 충남서북부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기업인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가입한 기업인네트워크의 특성과 성과기대에 대한 분석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서 기업인들이 기업인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경영성과를 높이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수행한 기업인네트워크 가입자의 활동에 대한 실태 분석과 연구모형의 가설검증 회귀분석의 결과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실태분석에서는, 기업인들은 평균 3개 정도의 기업인네트워크에 가입해 각 가입단체별로 3년 정도 활동을 지속하였다. 네트워크에 가입한 기업인들은 경영관리에 대한 성과기대가 가장 컸으며, 특히 여성 기업인이 경영관리에 대해 갖는 성과기대가 남성에 비해 클 뿐만 아니라 재무적 성과기대도 상대적으로 컸다. 산업별로는 다수인 제조업과 기반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서비스업과 기타산업의 기업인이 더 크게 경영관리 성과기대가 나타났지만, 농업, 수렵업, 임업 등의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기업인 네트워크에 신규 가입할 때는 기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회원들의 이력과 주관기관의 인지도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기업의 매출규모와 기업인 네트워크의 활동을 보면, 10억 미만의 소규모기업인은 B2G 유형에만 의존적인 만족도와 중요도를 크게 보였고, 30억에서 50억 규모의 성장준비기업은 모든 유형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만족도는 모든 유형에 높게 나타나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적 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파악된다. 100억에서 500억 규모의 기업은 B2G, B2B 유형에 대한 만족도와 중요도가 비교적 높았다. 500억 이상의 기업에서는 각 유형에 크게 중요도를 두지 아니하며 학교나 기관중심의 네트워크에 만족도가 컸다. 이는 성장단계별로 네트워크 활동의 목적이 다양함을 시사한다.

충남서북부 9개의 기업인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연구가설의 검증은 전체 네트워크, 유형별 네트워크, 그리고 개별적 네트워크에 대한 3단계 분석으로 수행되었으며, 분석결과 모든 단계의 검증에서 직원채용 및 관리에 관한 인적성과기대는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1단계 전체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재무성과기대만이 회귀모형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가입단체의 수가 재무적성과기대에 정의 영향을, 만족도가 재무적성과기대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회귀분석은 가입단체의 수만이 경영관리성과기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분석인 기업인네트워크를 B2G, B2B, CEO과정 세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B2G유형에서 임원활동여부가 경영관리성과기대에 정의 영향을, 만족도가 재무적성과기대에만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2B 유형과 CEO과정 유형의 회귀모형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고 다만 단순회귀분석한 결과에서 CEO과정 유형의 평균활동기간이 경영관리성과기대와 재무적성과기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 분석으로 9개 단체별로 각각 분석한 결과, 만족도는 상공회의소와 H대학CEO과정의 경영관리성과기대에만, 충남TP와 충남벤처협회에는 성과기대(경영관리, 재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다른 네트워크에서는 성과기대에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충남테크노파크만이 임원활동을 하면 경영관리성과기대는 높아질 것이라고 나타났다. 또한 대전 충남이업종교류회, 충남국제로타리클럽, K대학 CEO과정, D대학 CEO과정, S금융 CEO과정에 가입한 기업들

의 회귀모형에서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각 네트워크별로 운영 프로그램의 차별화가 상대적으로 중요함을 보였다.

##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방향

본 연구는 실태분석과 더불어 기업인 네트워크의 특성과 성과기대 사이의 유의한 관계를 규명하고자 대상네트워크를 3단계로 구분하여 연구하였으나, 기업인네트워크별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인 기업인네트워크에 대한 세부적인 접근과 연구가 향후 더 필요하다. 또한, 요인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규명하는 모형설계와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하지 못하였으며 충남서북부지역에 한정된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물론 기업체 CEO를 100명 가까이 표본으로 조사했다는 의의를 갖기도 하지만, 조사표본의 크기에 비해서 산업, 기업규모 등의 다양한 특성요인에 대한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보다 폭넓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조사대상, 조사 설계 및 분석의 범위를 한정하여 기업인네트워크의 형성과 진화과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인 네트워크의 구성과 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분석도 요구된다.

## 참고 문헌

- [1] Gitman and McDaniel, 정재영 외 공역, "The Future of Business(경영학배움터)", Thomson, 생능출판사, 2006.
- [2] 정대용, 김춘광, "기업가의 사회적 네트워크, 정보, 자원 접근, 그리고 기업가적 성과 간의 관계모형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제23권, 제4호, pp.2173-2190, 2010.
- [3] J. Watson, "Modeling the relationship between networking and firm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22, pp.852-874, 2007.
- [4] J. Bruderl and P. Preisendorfer, "Network support and the success of newly founded busi

- nesses," *Small Business Economy*, Vol.10, pp.213-225, 1998.
- [5] L. Sean, "Entrepreneur social competence and capital: The social networks of politically skilled entrepreneurs," *Academy of Management Proceedings*, Q1-Q6, 2006.
- [6]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09.
- [7] 이정규, "사회적 네트워크와 지역혁신",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0권, pp.221-242, 2003.
- [8] 조호현, "기업 간 네트워크의 협력구조에 관한 탐색적 연구: 조선 산업의 생산네트워크 중심으로", *생산성논집*, 제21권, 제4호, 2007.
- [9] 양영석, "사회적 네트워크의 전략적 네트워크로 성장가능성 실증분석", *산업경제연구*, 제21권, 제3호, 2008.
- [10] 이철우, 김명엽, "대구지역 벤처기업의 비공식 네트워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0권, 제4호, 2004.
- [11] 권병욱, "일본 중소기업의 네트워크변화와 경제적 성과", *일본문화학보*, 제26권, 2005.
- [12] 임성준, "네트워크시대의 중소기업", *International Trade Business Institute Review*, Vol.5 No.2, 1999.
- [13] 이상민, 이용수, "사회자본 투자의 경제사회학적 분석 ; 기업의 사적 네트워크 투자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1권, 제2호, 2007.
- [14] DiMaggio and Powell, "The New Institutionalism in Organizational Analysi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Vol.17, No.3, 1991.
- [15] 최승진, "네트워크를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한국중소기업학회*, 2003.
- [16] R. Huggins, "The success and failure of policy-implanted inter-firm network initiatives: Motivations, processes and structure," *Entrepreneurship and Regional Development*, Vol.12, No.2, pp.111-135, 2000.
- [17] A. R. Anderson and S. L. Jack, "The effects of embeddedness on entrepreneurial proces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17, No.5, pp.467-487, 2002.
- [18] H. Aldrich, B. Rosen, and W. Woodward, "The impact of social networks on business foundings and profit: A longitudinal study," in N. C. Churchill(ed.),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Babson College Center, pp.154-168, 1987.
- [19] C. A. Fornel, "A 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barometer: The Swedish experience," *Journal of Marketing*, Vol.56, pp.6-21, 1992.
- [20] W. Freyer and B. S. Kim, "Competitive strength of German trade fair industry and its implication on tourism," *Sejong Research Institute*, pp.21-57, 2001.
- [21] H. Hoang and B. Antoncic, "Network-based research in entrepreneurship: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18, No.2, pp.165-187, 2003.
- [22] 이인구, "대덕CEO의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과 네트워크구조가 창업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연구", *한밭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2009.
- [23] J. A. Starr and I. C. Macmillan, "Resource cooptation via social contracting: resource acquisition strategies for new ventures," *Strategic Manage. J.* Vol.11, pp.79-92, 1990.
- [24] A. Larson and J. A. Starr, "A network model of organization forma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 Vol.17, No.2, pp.5-15, 1993.
- [25] Paola Dubini, Howard Aldrich, "Personal and extended networks are central to the entrepreneurial proces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6, No.5, pp.305-313, 1991.
- [26] 최영근, "기업가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기업의 전략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업가의 지분율과 산업 환경 선택의 조절효과 탐색", *포스코경영연구소*, 2009.

- [27] 정동섭, 정문섭, “벤처기업의 네트워크 특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인적자원관리연구, 제12권, 제2호, 2005.
- [28] 성태경, “기업규모, 네트워크, 그리고 기술혁신; 우리나라 제조업에 대한 실증 분석”, 기술혁신연구, 기술경제경영학회, 제13권, 제3호, 2005.
- [29] 이재규, “이업종교류와 지식 네트워크조직”, 중소기업연구, 제24권, 제3호, 2002.
- [30] 이병섭, 전인오, “중소기업의 윤리적 특성요인과 기업경쟁력 간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8권, 제6호, pp.175-185, 2008.
- [31] 안광준, 채희원, 송재용, 조승아, “창업 CEO의 특성이 신생기업의 제휴 형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네트워크 관점을 바탕으로”, 經營學研究, 제38권, 제6호, 2009.

- 2004년 3월 ~ 현재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교수
- <관심분야> : 전자상거래, 경영정보시스템 응용, 인터넷 구매지원 및 검색, 인터넷 광고, 비즈니스IT 스킬 및 교육 등

**윤 광 식(Kwang-Sik Yun)**

정희원



- 2008년 2월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경영학사)
- 2011년 2월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경영학석사)
- 20012년 3월 ~ 현재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박사과정
- <관심분야> : 자격, 교육훈련, 훈련수요, 인적자원경영 및 개발

저 자 소 개

**최 애 희(Ae-Hee Cho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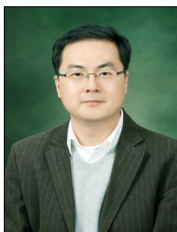
정희원



- 1998년 2월 : 우송대학교 컴퓨터공학(공학사)
- 2011년 2월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대학원(경영학석사)
- 2004년 2월 ~ 현재 : (주)드리미 대표이사
- 2011년 3월 ~ 현재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박사과정
- <관심분야> : 기업과 인적자원경영.

**이 재 원(Jae-Won Lee)**

종신회원



- 1993년 2월 : KAIST 과학기술대학 경영과학과(이학사)
- 1995년 8월 :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경영정보공학과(공학석사)
- 2003년 8월 :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경영공학(경영학박사)